

포항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지역 이차전지 경쟁력 알린다

중서 열리는 ‘CIBF 2025’ 참가
3000여개 기업·40만명 모여
3개 기업 공동홍보관서 소개

포항시는 중국 선전 국제 엑스포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차전지 산업 전시회인 ‘CIBF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CIBF 2025’는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배터리 박람회로, 3000여 개 기업과 40만 명 이상의 전문가와 바이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포항시는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지역의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글로벌 대학, 기회발전 특구 등 다양한 국책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이차전지 도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홍보관(안).

특히 이차전지 소재산업 전주기 생태계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극재 원료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이차전지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포항시는 전주기적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3개 기업의 공동 홍보관에서 지역 기업들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엔다이브(ENDIV E), ㈜다원화학, 피엠그로우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

이고 있다.

엔다이브는 사용후 배터리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재사용 및 재활용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원화학은 친환경적인 건식열분해 공정으로 폐배터리에서 이차전지의 핵심 광물인 리튬을 회수하며, 이 과정에서 폐수나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피엠그로우는 국내 최초 배터리 안

전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AI 기반 실시간 통합 안전관리 서비스로 배터리의 수명, 상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안전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및 글로벌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상담과 기술 협력 네트워킹을 추진해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해외 전시회 참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은 배터리 소재 생산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안전관리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산업 구조를 갖춘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특화 도시”라며, “이번 CIBF 2025 참가로 포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당당히 경쟁하는 도시임을 세계에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metroseoul.co.kr

목포시, 김 수출액 42.8%↑… ‘전국 1위’ “여수시, 전남서 교통사고 가장 많아”

올해 1분기 김 수출액 3032만弗
김 산업 육성·세계시장 확대 박차

전남 목포시의 김 수출액이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세계시장에서의 ‘검은 반도체’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 1분기 김 수출액이 303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 증가하며, 전국 지자체 중 수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목포시 전체 수출액 3595만 달러의 84%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에도 김 수출액 1억3308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김 수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목포시는 민선 8기 들어 김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에 나서는 등 김



마른김 거래소.

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22년 (제)목포수산물지원센터를 전국 최초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김 산업 전문화의 길을 열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남경찰청 “여수서 1416건 발생”

전남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여수시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순천시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8382건(사망 202명) ▲2023년 8344건(사망 228건) ▲2024년 8272건(사망 202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전남 시·군 중에서도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여수시로 집계됐다. 사고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여수는 전년(1304건) 대비 8.59% 증가한 1416건을 기록, 2년 연속 전남 최다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목

포시 1197건, 순천시 1053건, 나주시 626건, 광양시 608건 등 순이었다.

2022년까지 전남에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목포였으나, 2년 새 18.57%(273건)이 줄어들면서 1위 자리가 여수로 바뀌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순천시로 한 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남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수를 비롯해 나주와 무안군의 사고 건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주는 지난해 사고가 전년(521건) 대비 20.15%(105건)이 더 늘었다. 무안은 지난해 308건으로 전년(220건)에 비해 40%(88건)나 급증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창원국가 산단’ 랜드마크 사업비 확보

총 10개 사업, 750억 규모로 확대

경상남도가 창원국가 산업단지의 문화 공간 조성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경남도는 창원국가 산업단지가 문화선도산단 테마공간형 사업에 추가 선정돼, 당초 총사업비 428억원 규모 사업이 75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문화선도산단 ‘테마공간형’ 지원 대상을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고, 창원국가 산업단지가 포함돼 국비 189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3월 산업부·문체부·국토부 공동 공모 사업 ‘2025년 문화선도산단’에 선정됐다. 당초 9개 사업, 총 428억원 규모의 ‘일

상체험형’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포함된 ‘테마공간형’으로 확대돼 총 10개 사업 75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됐다.

경남도는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통해 창원국가 산업단지를 상징할 시설을 발굴하고, 가상현실(VR)·확장현실(XR)·메타버스를 활용한 K-기계·방산 체험존, 팝업 스토어,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미래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계·방산 중심 산업단지라는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재해석하고, 청년 근로자 유입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도약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 기관’

부산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행정안전부의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부산시가 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이번 평가로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지난해 1분기, 상반기에 이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울진군

상용기체 수소충전소 조성

울진군이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수소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소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군은 총 60억 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상용기체 수소충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수소버스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울진 내 수소차 보급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설치 부지는 지난 3월 2차 공개모집을 통해 접근성이 뛰어난 울진읍 읍남리 7번 국도 인근으로 확정됐다. 울진군은 오는 5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북도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 도입·운용

경북도가 보건복지부의 ‘중증 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경기도에 이어 전국 2번째로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를 도입·운용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의료취약지로, 중증·고난도 치료를 위한 의료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3대 급성기 중증 응급환자(급성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급성중증외상)의 사망률, 중증도 보장 응급질환 사망비 등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하동군

70곳 대상 ‘집중안전점검’ 진행

하동군이 오는 6월 13일까지 지역 내 70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한다.

하동군은 빈틈없는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후도,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통시장, 주택,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공사 현장, 교량 등 10개 유형의 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경주 SMR 국가산단’ 우수기업 유치 박차

670개社에 입주투자 제안 서한 발송

경주시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주 SMR 국가산단’에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체,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체, 한국원자력 산업협회 및 한국방사능분석협회 회원사 등 총 670개 기업에 입주 투자 제안 서한을 발송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명의로 발송된 서한문에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

dular Reacto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비롯해 경주의 입지적·산업적 강점이 담겼다.

경주시는 특히 국내 유일의 SMR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월성원자력 본부, 중수로해체기술원 등 원전 관련 기관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KTX 경부선과 동해고속도로 동경주IC, 김해·대구공항 등 4개 공항, 포항영일만항·울산항·부산항 등 3개 항만과 인접해 우수한 교통·물류 인프라를 갖췄다는 점도 부각했다.

/경주(경북)=최지웅 기자